

영국 서점의 신간 코너나 베스트셀러 코너의 책들은 모두 엇비슷해 보인다. 보수적인 표지 디자인 탓도 있지만, 익숙한 출판사의 이름이 많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영국 출판계 흐름을 주도하는 출판사는 이른바 '빅7'이다. 펄 권, 맥밀란, 호더 헤드라인, 랜덤 하우스, 트랜스월드, 하퍼콜린스, 사이몬 앤 슈스터. 최근 몇 년 새 영국 출판계는 경영권 인수와 합병, 도산 등을 거치면서 이 일곱개 거목으로 압축됐다. 일곱개의 출판 블랙홀이 다른 출판사들을 거대한 중력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존 머레이, 호더 헤드라인에 합병돼

지난달 영국 출판계엔 또 하나의 큰 지각변동이 있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존 머레이' 출판사가 234년의 출판 역사를 마감하고 호더 헤드라인 출판사에 합병된 것. 호더 헤드라인 출판사는 영국에서 잡지 음반의 대형 체인그룹인 WH 스미스를 모회사로 하는 대형 출판사다. 이번 합병으로 7세대를 거쳐 이어온 존 머레이가는 출판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됐다.

1768년 존 맥머레이 해군 대위는 은퇴한 후 서점과 출판사를 매입, '존 머레이'로 개명해 사업을 시작했다. 이름 없는 시인이던 바이런을 발굴해 '하루아침에' 유명작가로 만들었고, 런던 사무실은 주요 작가들의 사랑방 구실을 했다. 1800년대에는 제인 오스틴의 《엠마》,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아프리카 탐험》 등을 펴내 영국 지식역사의 산실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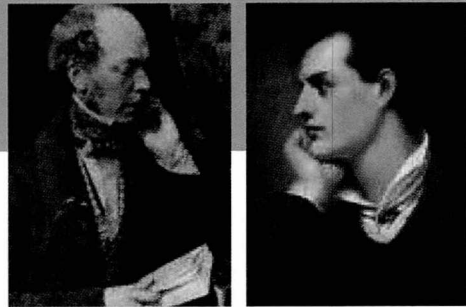
이밖에 코난 도일, 프레야 스타크, 존 베틀 셔먼, 오즈버트 랭커스터, 프랑수아즈 사강 등의 작가를 배출했으며, 사상 처음 방송과 손잡고 케니스 클라크의 《문명》을 제작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교육 분야에 주력해왔지만, 냉혹한 자본 시장에서 점차 설자리는 좁아졌다. 존 머레이를 합병한 호더 헤드라인 출판사는 교육 분야에서 '하이네만'에 이어 2인자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실 영국에서 '빅7'이 아닌 출판사들이나 적은 비용으로 공격적인 출판을 하는 독립출

거대 출판그룹 중심으로 영국 출판시장 재편된다

존 머레이 등 영국 출판명가 속속 무너져

김지원 | 출판칼럼니스트



7세대에 걸친 출판신화를 일궈낸 존 머레이가 사람들(왼쪽)과 그들이 발굴한 시인 바이런.

판사가 아니라면, 일년 총매출액이 130억 원에서 2조원 사이의 존 머레이 같은 중간 규모 회사에게 지금은 건디기 힘든 시절이다. 정가 3만5천원 정도의 장정본 판매로 단기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회사가 쓰러지기 전에 가야 할 길을 정해야 할 시점이다.

소형 출판사의 활력 되살려야

25년 전만 해도 존 머레이나 조나단 케이프, 안드레 도이치, 해미쉬 해밀턴 같은 중간 규모 출판사가 펄 권이나 콜린스 같은 거목들과도 한판 승부를 겨뤄볼 만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케이프는 랜덤하우스로 넘어갔고, 해밀턴은 펄 권 소유다. 호스 에스테이트도 지난해 하퍼 콜린스에 팔리는 운명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아주 최근엔 하빌 프레스 역시 랜덤하우스의 품안으로 사라졌다. 남아 있는 건 브루즈 버리와 파버 정도다. 내성이 약한 작은 출판사들은 거대한 블랙홀의 중력을 견디지 못한다. 이런 흐름은 거의 혁명적이다. 에이전트와 프리랜스 작가들도 흔들거린다.

이제 '빅7'이 언젠 '빅6'이나 '빅5'로 바뀔지 모를 일이다. 작은 출판사들은 사업 유연성이 적은 데다, 대형출판사가 고민하는 문제까지 고스란히 안고 있다. 울며 겨자먹기로 대형출판사와 시장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존 머레이가 합병을 발표하며 고백한 말

이 있다. "다들 소규모 회사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원했던 책은 모두 대형출판사에 비싼 가격으로 들어갔다." 어쩌면 중소출판사들은 제한된 자본으로 뻥한 게임에 뛰어들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장기전을 이끌기엔 뒷심이 약하다. 서점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도 치열하다.

하지만 소형출판사가 설 자리가 그토록 없는 것일까. 《옵서버》의 북칼럼니스트 로버트 맥크람은 희망을 이야기한다. "대형 출판사의 상상력은 둔탁하다. 작은 출판사들은 활기에 넘치고 아이디어도 풍부하다. 작가들은 바로 애정 어린 책임과 상상력, 활기를 원하고 있다." 일례로 J. K. 롤링을 발굴해 성공한 브룸즈버리를 든다. 존 머레이가 합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며 소형 출판사들이 다시 초발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충고한다.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다국적 기업 형태의 대형출판사에 '조직과 관리'가 있다면, 소규모 출판사들에겐 '사람과 에너지'가 있다. 그러기에 중소출판사들의 다름으로 굴곡 심한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온갖 상상력을 실험할 수 있는 살아 꿈틀거리는 시장이다. 한해 수많은 출판사가 태어나고 사라지는 건 그만큼 자본의 논리만으론 통하지 않는 시장의 탄력성을 증거한다. 출판사의 생성과 소멸을 마냥 한탄할 일은 아니다. 그런 부침 끝에 역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